

변화의 흐름을 타고, _____ 산업보건 60년 도약의 발판으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헌기입니다.

이제 저는 제10대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 만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산업 현장에서 피땀 흘린 상공인과 노동자들 덕분입니다. 아울러 산업보건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노동자의 생명을 위한 안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도한 법과 제도에만 얽매어 변화가 없는 틀에 박힌 사업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영 혁신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비전 2025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보건 관련 사업 및 업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산업보건 연구와 역학조사 참여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사업 분야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의 잠재력을 찾고 미래 산업보건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 사원의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의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직원들이 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협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Know-how) 등을 살려 협회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엄중하고 시급하며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고도 먼 길을 지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회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서로를 독려하며 함께 가야만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60여 년간 쌓아 올린 산업보건을 토대로 직원과 협력하여 협회가 당면한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역사적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장으로서는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보건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